

문해력
교과서

문해력
문제 은행

초등학교 1학년

창비

우는 아이

옛날에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김홍도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김홍도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재미있게 그렸어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속 사람들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을 볼까요? 서당은 지금의 학교와 비슷해요. 오늘날 선생님과 같은 훈장님께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던 곳이지요.

그런데 서당의 한가운데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글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훈장님께 혼이 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는 아이를 보며 알미운 표정을 짓는 아이도 있네요. 어떤 아이는 훈장님 몰래 우는 아이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는 것 같기도 해요.

훈장님께서서는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아마도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울음을 그치거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글공부를 열심히 하자꾸나.”

1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김홍도의 그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① 자연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렸다.
- ② 동물들의 모습을 실감 나게 그렸다.
- ③ 어린아이들의 모습만 골라서 그렸다.
- ④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렸다.
- ⑤ 쉽게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을 그렸다.

강아지 이름 짓기

“보리야!”

보리 같은 황금빛 털의 강아지가 세아에게 달려갑니다.

“초코야, 이리 와!”

이번에는 멋진 갈색 털의 강아지가 준호에게 달려가 와락 안깁니다.

‘보리’와 ‘초코’는 모두 ㉠ 이름입니다. 강아지 이름은 부르기 편하게 두 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리’와 ‘초코’는 털 색깔의 특징을 살린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징을 살려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의 강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강아지 이름을 더 살펴볼까요? 은정이네 강아지는 코가 검정콩 같이 조그맣고 까매서 ‘콩이’로 불립니다. 영재네 강아지 이름은 ‘행복’입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라 보는 사람까지 행복해져서 붙여 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1 이 글에 나온 강아지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세아
- ② 보리
- ③ 초코
- ④ 콩이
- ⑤ 행복

나무의 일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더러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깨끗한 공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 줍니다.

둘째, 물의 양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저장하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에는 저장하고 있던 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되게 해 주고 계곡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뿌리들은 그물처럼 얽혀 있어 바윗돌이나 흙을 단단하게 잡아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바윗돌이나 흙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를 지켜 주는 고마운 나무! 나무를 심는 것만큼 ㉠ 일도 중요합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나무를 꺾거나 상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무가 우리를 지켜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나무를 지켜 줍시다.

1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나무의 이름
- ② 나무의 종류
- ③ 나무가 하는 일
- ④ 나무를 심는 날
- ⑤ 나무에 사는 동물

늑대가 나타났다

어느 마을의 풀밭에서 양 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양 떼를 지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심심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 장난삼아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풀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양 떼 주위에 늑대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심심해서 장난으로 외쳐 보았어요.”

며칠 뒤, 소년이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양을 물어 간다!”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양 떼 주위에 늑대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소년이 장난으로 외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지만 소년을 타이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풀밭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늑대다!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 ”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풀밭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1 소년이 처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친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심심해서 장난삼아 외쳤다.
- ②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으로 착각했다.
- ③ 혼자 있기 무서워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
- ④ 다른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외쳤다.
- ⑤ 양 떼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양떼를 잡으려고 외쳤다.

2 이 이야기를 통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거짓말을 하지 말자!
- ② 재미있는 일을 하자!
- ③ 착한 일을 많이 하자!
- ④ 어른들 말씀을 잘 듣자!
- ⑤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자!

3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천천히
- ② 부리나케
- ③ 느긋하게
- ④ 살금살금
- ⑤ 설렁설렁

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늑대다, 늑대 잡아라!
- ②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 ③ 이번에는 정말일 거예요.
- ④ 소년이 늑대를 잘 쫓을 거야.
- ⑤ 빨리 양 떼를 구하러 갑시다!

젓니가 흔들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이를 ‘젓니’라고 불러요. 젓니는 태어난 지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해서 3세 전에 모두 나고, 6세 무렵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젓니가 흔들리면 어린이들은 무서워하고 불안해해요. 젓니가 빠질 때 아플까 봐 무섭고, 또 젓니를 빼내면 자기 몸의 한 부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젓니를 뽑으면 그 자리에 새 이가 다시 자라요. 젓니가 빠진 자리에 새롭게 나오는 이를 ‘㉠ ’라고 불러요. 영구치는 평생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이에요. 젓니를 잘 빼야 영구치가 잘 나온답니다.

젓니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흔들린다고 바로 이를 뽑을 필요는 없어요. 점점 더 흔들리다가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흔들리기만 하고 빠지지 않는 이도 있어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깨끗한 실이나 수건으로 이를 뽑아 주시기도 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젓니를 직접 더 흔들기도 해요. 그럴 때에는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이를 만져야 한다는 거예요. 손에 비누를 칠해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해요. 더러운 손으로 이를 만지면 세균이 이와 잇몸에 달라붙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는 아이

1 ④ 2 ② 3 ④ 4 ⑤

- 1 옛날에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김홍도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재미있게 그렸다고 하였다.
- 2 이 글은 화가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3 이 글의 글쓴이는 서당의 한가운데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글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훈장님께 혼이 난 것 같다고 하였다.
- 4 훈장님께서서는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시다고 하였다.



강아지 이름 짓기

1 ① 2 ③ 3 ②, ③ 4 ②

- 1** 이 글에 나온 ‘세아’라는 이름은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강아지 ‘보리’를 부른 가족의 이름이다.
- 2** 이 글에서 ‘보리’는 황금빛 털의 강아지 이름, ‘초코’는 갈색 털의 강아지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리’와 ‘초코’는 모두 털 색깔의 특징을 살린 이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 3** 강아지의 특징을 살려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의 강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 4** ‘보리’와 ‘초코’ 모두 두 글자로 된 강아지 이름이다. 이처럼 강아지 이름은 부르기 편하게 두 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나무의 일

1 ③ 2 ③ 3 ④ 4 ①

- 1** 이 글은 나무가 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무를 심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나무의 뿌리들은 그물처럼 얽혀 있어 바윗돌이나 흙을 단단하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로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이 글의 글쓴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무가 우리를 지켜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나무를 지켜 주자고 하였다.
- 4**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무를 꺾거나 상하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잘 보살피고 돌본다는 의미의 ‘보호하는’이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다.

늑대가 나타났다

1 ① 2 ① 3 ② 4 ②

- 1** 양 떼를 지키던 소년은 심심해서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친 것이다.
- 2** 소년이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한 탓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를 통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3**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소년에게 달려오는 상황이므로,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의 의미를 지닌 ‘부리나케’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다.
- 4**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세 번째 외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외침을 무시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와 같은 말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젓니가 흔들려요

1 ⑤ 2 ② 3 ⑤ 4 ②

- 1 한 번 나면 평생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이는 ‘영구치’이다.
- 2 영구치는 젓니가 빠진 자리에서 나오는데 젓니를 잘 빼야 영구치가 잘 나온다고 하였다.
- 3 이 글의 글쓴이는 젓니를 만질 때 반드시 비누를 칠해 30초 이상 꼼꼼히 씻은 깨끗한 손으로 만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4 젓니가 빠진 자리에 새롭게 나오는 이를 ‘영구치’라고 부른다. ‘젓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이, ‘어금니’는 안쪽에 있는 큰 이, ‘송곳니’는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뾰족한 이, ‘사랑니’는 어른이 되어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를 부르는 말이다.